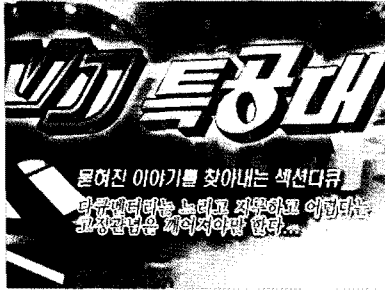


패밀리 입맛을 잡아라~ 5월, 가정의 달, 가족 사랑 만찬

▶KBS 2TV <VJ 특공대> 2009년 5월 8일자 방송분 ▶오리촌(오리코스요리) 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65-14번지 ☎(031)901-5288



5월, 패밀리 입맛을 잡아라~ 끈끈한 가족애 제~대로 쌓는 가족외식명당이 있다. 치솟는 물가, 납작해진 지갑에도 외식 걱정 끝! 싼 가격에, 무한정리필가능~ 가족과 함께 먹으니 기쁨은 배가 된다~

패밀리 마음 한번에~ 사로잡은 한 식당!! 5월, 가정의 달 맛이 특급리무진 서비스를 예약하면 향시대기. 가족입맛 평정한 이 식당에 무기는??!! 바로 입맛 따라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오리코스요리! 아들, 손자, 며느리 오랜만에 모이기 위한 외식장소로 안성맞춤이다!! 5월, 온 가족을 위한 정겨운 만찬을 VJ카메라에 담았다.



[이정민 아나운서] 어른들 가슴에 핀 꽃 한 송이가 흐뭇한 오늘, 어버이날입니다. 여러분들도 감사의 마음 전하시느라 분주한 하루 보내셨을텐데요, 이렇게 기념일이 많은 5월,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외식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. 여기 가족 손님을 상대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는 맛집들이 있습니다. 온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은 정겨운 만찬, VJ카메라가 담았습니다.

[손님들] 밥 먹으러 왔어요.



드디어 가족이 뒀다. 평소 지지고 볶고 뜯해도 이 때만은 뭉쳐야 제맛이라고. 뱃속 편하다는 5월.

[손님1] 가족이라 행복해요.

입맛 살리는 가족 외식 명당.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. 온가족 입맛을 평정했다! 입구부터 문전성시. 발 없는 말 천리 퍼진 소문 듣고 찾아왔다는 가족들.



[손님2] 몸을 보호하지는 의미로 왔어요.



이구동성으로 찾는 메뉴가 있다는데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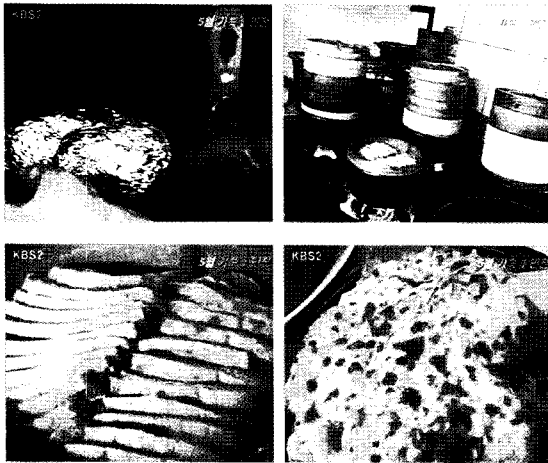
[손님3] 오리코스요.

【손님4】 오리코스요.

환상의 복식조가 따로 없다. 주문 떨어지자 척하면 척, 척하면 척. 오리의 무한 변신이 이들의 손에서 시작된다.



【직원1】 사장님이 무조건 많이 넣으라고 했어요.



코스가 다 같은 코스가 아니다. 구이로 시작해 탕으로 끝나는 평범한 한 상은 그만. 굽고, 삶고, 찌고, 조리법만 말해도 한 나절 죽히 걸릴 오리계의 끝장 포스. 30가지의 한약재 배터지게 붓는가 하면 단호박 치즈에 온 몸 던져 미끄러진다. 오리의 변신! 그렇다. 무죄다. 말로해서 무었하랴. 이 모든 요리가 한 상에 차려진다.

【직원2】 오리코스 나왔습니다.



【가족들】 와~ 본격적인 시식에 앞서서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야한다. 먼저 나오는 것이 맛 좋다고 식탐 발휘했다가는 낭패. 철저한 페이스 조절은 필수다. 가지각색 오리요리가 등장할 때마다 탄성 절로 터지고, 오리



속내 진술하다 진술해. 이제 남은 것은 먹자 먹어.

【손님5】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.



이쯤되면 혀 끝 진동 온 몸으로 퍼지기 마련.

【손님6】 가족들이 코스 하나로 다 배가 불러서 나갈 수 있어요.



제 멋대로 제 멋대로. 오리 잡아먹고 닭발 내밀어도 이 맛보다 뻘뻘할까. 허나 가족 행복 앞에서는 뻘뻘해도 좋다.



【손님7】 어버이날 맞이해서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 대접해 드리려고 가족끼리 합의를 본 거예요.

【손님8】 이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. 가족들이 단란하게 모여서 한자리에 앉으니까 얼마나 단란하고 보기 좋



아요. **【가족들】**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하여!